

美 국방체계관리대학(DSMC) 소개(1)



필자는 지난 1991년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 DSMC의 고급관리과정(EMC)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내용도 뛰어나고 훌륭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교육기관 설립이 절실하기에 이 대학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 합참과 각군에서도 무기체계 관리에 대한 연수과정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 연수기관을 소개하게 된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필자 주)

鄭 鳳 秀 /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美國 정부예산의 20%를 국방예산으로 쓰는 미국 국방부는 방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년 전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를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을 통해 수많은 뛰어난 관리자들과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시켜 왔으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건설,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군, 군축의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91년 10월 1일 새로운 「국방체계 획득 종합대학교(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의 발족에 관한 새 법안이 의회에서 입법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교육 기관들을 가일층 확대 증편하여 차세대 군사력 건설에 기여코저 함이 분명하며, 다시 한번 이들의 비전있는 長期정책구상에 감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池萬元 著, 1991년, 김영사)가 이 분야에 종사하는 민, 관, 군 관계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형편임에도 나라 예산의 30%이상을 국방예산으로 쓰고 있는 우리로서는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대해 더욱 연구를 해야 할 것이며, 예산관리에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경제와 군사력 건설이라는 2가지를 동시에 성취해야만 하는 우리의 어려운 여건에서는 더욱 능률적인 예산의 관리가 아쉬운 입장입니다 ●●

DSMC 소개

「美 국방체계관리대학」은 미국 국방부 산하에 있는 「The Defense Systems Management College」(DSMC로 약칭)를 말한다. Defense Systems이라고 하면 흔히 무기체계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미 국방부 훈령(DoDD 5000계열, 1991. 2. 23.)에 따르면 국방부 획득 체계는 국방부에서 기획, 설계, 개발, 획득하여 유지관리 및 처분되는 모든 장비(Equipment), 시설(Facilities) 및 업무(Services)를 포함하여 Defense Systems라고 한다.

DSMC는 워싱턴 DC에서 리치먼드(Richmond)방향(남향)으로 약 20마일 되는 곳인 Fort Belvoir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은 원래 육군공병학교와 야시장비연구소(NVL)가 있는 곳으로 유명했으나, 지금은 군부대가 모두 다른 곳으로 가고 학교, 병원, 연구시설 등만이 있다. 다음은 학교의 특성을 말해주는 간결한 문장이다.

Advanced courses and Information for military officers and civilians in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흔히 방패나 문장에 새겨진 제명을 보면 그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임무를 알 수가 있다. DSMC의 문장의 제명은 DUCTUS(Leadership), DOCTRINA(Scholarship), DOMINATO(Management)이다.

따라서 1970년대초 학교가 설립될 당시의 학교의 3가지 임무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학식을 심어주고, 관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연혁과 변천

1969년 당시 David Packard 국방차관은 기존의 획득관리 교육에 대한 모든 면을 검토하기 위해 검열단을 구성하였다.

성공적인 획득 프로그램은 「참여관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획득관리 교육은 「절차」에 대한 것 보다는 「사람」에 대해 더 강조해야 한다고 Packard 차관은 믿었다.

검열단의 1차적인 연구의 초점은 1964년 Wright-Patterson AFB에 설립된 국방무기체계 관리센터(DWSMC)에 있었다. 이는 방산물자 획득에 필요한 관리자 양성을 위한 유일한 국방부 교육기관이었다.

검열단은 지리적인 위치가 워싱턴에 있는 국방정책결정권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워싱턴에서 가까운 곳으로 학교를 이전할 것을 건의하였다.

1970년 Packard 차관은 학교이전 문제까지도 포함한 검열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1970년 7월 Fort Belvoir에 국방체계관리학교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74년 Clements 국방차관은 DoD획득관리자의 경력 개발을 포함하는 훈령을 발표하였다.

이 훈령에는 Major Program Office에서 근무할 모든 PM(사업관리관)후보자들은 보임받기전이나, 보임받은 직후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1976년 Clements 차관은 교과과정을 내실있게 크게 개편하고, 학교명칭을 「국방체계관리대학(DSMC)」으로 개칭하였다.

그 후 1988년 8월 22일, Taft 차관이 DSMC의 임무를 확대하여 국방획득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현재 이 대학의 4가지 임무는 이때 확정되었다.

DSMC의 4가지 임무는 획득교육과, 획득연구, 획득 출판물(정보)의 유포, 획득 교육 프로그램의 감시, 감독이다.

DSMC의 기구

DSMC의 기구는 지휘부, 교수부, 연구부, 운영지원부로 되어 있다. 지휘부는 Policy Guidance Council(PGC, 정책지도심의회),

Commandant(대학학장에 해당하나 편의상 여기에서는 교장으로 칭함) 그리고 Board of Visitors(자문위원회)로 되어있고, 이들을 보좌하는 3개 부서가 그 아래에 있다.

*PGC(정책지도심의회)

일반연구소의 이사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학교가 설립하기 전인 1970년 9월에 설립되었다.

- 정책을 입안하고, 지침을 마련하며, 학교의 운영과 행정에 관한 최고 사법적 대행기관으로 행동한다.

- 학교의 새로운 과정(course)에 관한 입학정책과 교과과정을 승인한다.

- 교장과 교무담당자의 임명을 승인한다.

- Board of visitors의 각 위원에 대한 승인을 한다.

이 심의회는 학교운영을 심의하기 위해 교장과 함께 회동하고 5개년 계획을 승인한다.

PGC의 구성은 국방차관(획득)을 의장으로 하고, 그의 합참부의장, 국방연구 및 기술국장, 인사 및 전력관리차관보, 생산 및 군수지원차관보, C³I 차관보, 계획분석 및 평가차관보, 국방회계 감사관, 육군 연구개발 획득차관보, 해군 연구개발 획득차관보, 공군 획득차관보, 육군 물자사령관, 공군 무기체계사령관, 공군 군수지원사령관, DLA 국장, 해군 작전 및 군수 부사령관, 해병대 연구개발 및 획득 사령관(총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Board of Visitors(자문위원회)

이 위원회는 PGC와 교장에게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언을 한다. 그리고 조직, 관리, 교과과정, 교수법, 시설 및 기타 학교운영에 관해 심의한다. 1년에 한번 이상, 이 위원회는 PGC와 교장에게 심의결과 보고와 최우수 임무 수행자를 추천한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방산업체 대표 4명, 학계대표 2명, 일반기업체 3명등 모두 9명이다. 이들은 교장의 추천으로 PG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기는 2년이나 위원장 추천으로 교장의 승인하에 1년 더 연임이 가능하다.

*Executive Institute(고급간부연구소)

원로 관리자의 경험을 학교에 제공해주며 정부, 업계, 학계 간부들과의 상호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Center for Acquisition Management Policy (획득관리정책센터)

획득정책 및 절차에 대해 DoD 획득고위보직자, 의회, 획득정책입안자 및 각군 선임 획득간부들과 PGC에 반영시킨다.

*Acquisition Enhancement Program Office (획득증진계획실)

획득과정(course)에 대하여 PGC 및 교장과 획득차관실에 자문을 한다.

*School of System Acquisition Education

교수부에 해당하는 부서로서 부서장의 직명이 DEAN이다. 현역 대령(공군)이 책임자이며, 여기서 직접 교육을 집행한다. 즉 Program Management Course(PMC)와 각종 단기 과정을 장악하고 있다.

그 아래 7개의 Department들은 PMC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일 아래쪽의 4개 부서는 지역학교를 보여준다. 즉 동부, 남부, 중부 그리고 서부지역 학교이다.

*Department of Research and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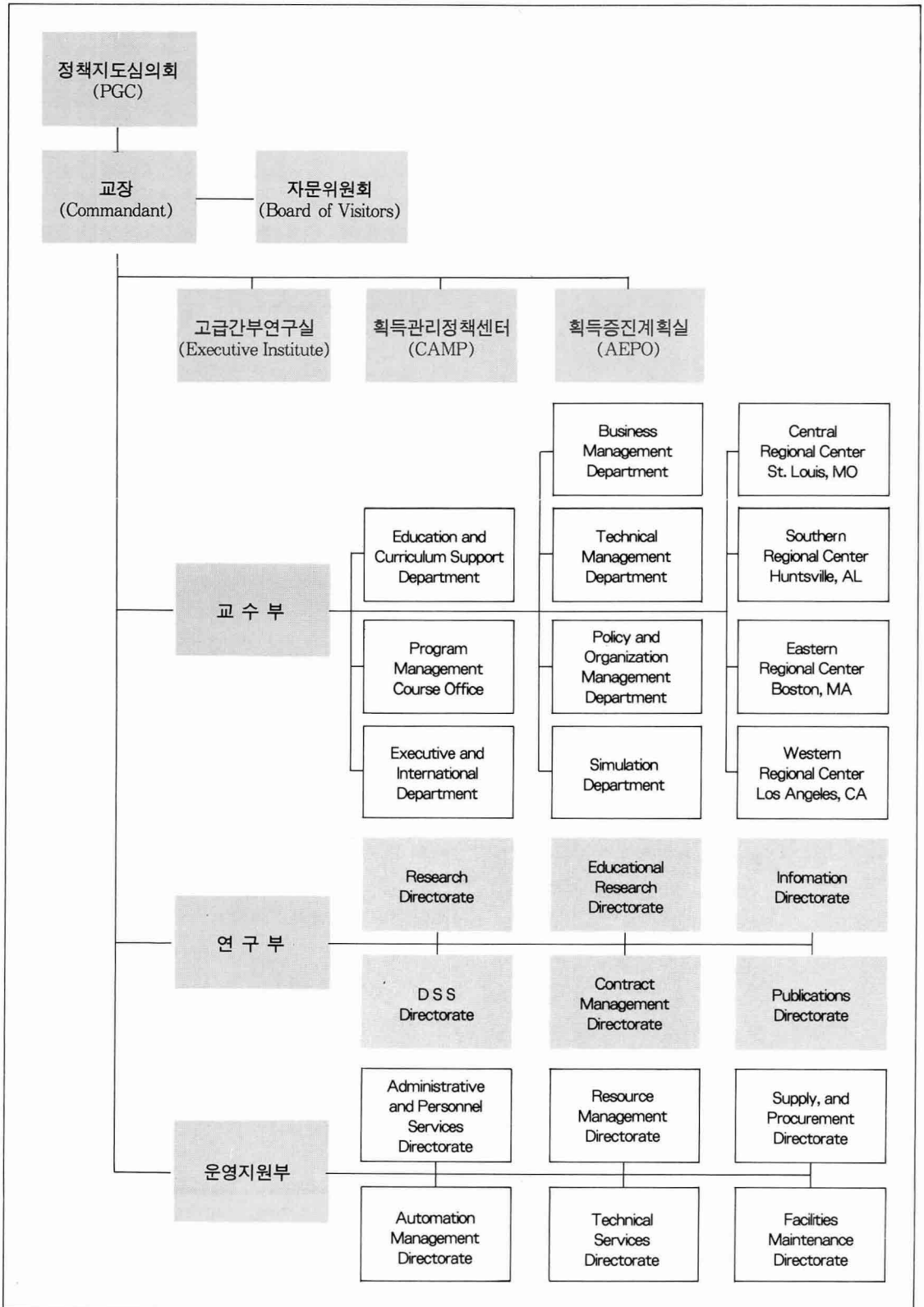
연구부로서 학교의 4개 임무중 연구와 정보의 보급등 2개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곳 역시 보직명이 DEAN이고, 현역대령(해군)이 책임자이다.

*Department of College Operations and Services (운영지원부)

학교의 운영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학교전체 살림을 맡고 있다. 즉, 행정, 인사, 자원, 학생입학 및 등록, 의전지원, 사진복사, 인쇄, 오디오 TV, 녹음, 장비관리, 건물시설, 장비계획, 자동장비, 전산기운영, 연간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매년 1백31개 과정에서 4천6백명의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이 부서의 직명도 DEAN이고, 현역대령(육군)이 책임자이다.

美 국방체계관리대학(DSMC) 기구표



과정 이수자

지금까지 과정이수자는 1990년 1월 1일 현재 육군과 공군에서 각각 1만1천5백명, 해군에서 8천5백명, 해병대에서 6백명, 기업체에서 3천8백명, 연방정부에서 3천5백명, 우방국에서 30여명 등 총 3만9천4백30명이다.

DSMC에서 연수받은 우방국들은 총14개국으로, 호주, 캐나다,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이다.

또한 DSMC에서 연수를 받은 미국의 방산업체는 AAI Corp.社 등 총 42개사이며, 미국의 정부기관은 CIA 등 14개 기관이다.

DSMC에서 연수받는 미국 정부기관(14개)

| 기관명 | 기관명 |
|---------------|--------------|
| CIA (중앙정보국) | DOE (에너지성) |
| DCA (국방통신국) | DOT (수송성) |
| DIA (국방정보국) | FAA (연방항공국) |
| DLA (국방군수지원국) | GAO (감사원) |
| DMA (국방지도국) | GSFC (우주비행국) |
| DNA (국방핵개발국) | NSA (국가안전국) |
| DODIG (국방감사관) | OSD (국방장관실) |

주거시설은 정부에서 제공하며 독신자용은 하루에 25불이고, 부부용은 하루에 35불이다. 모두 취사도구, 침실등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어있다. 다만 한가지 불편한 것은 공중전화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점이다.

체육시설로는 실내체육관, 골프, 테니스, 소프트볼, 수영, 보울링, 농구, 라켓트볼 등의 시설이 되어있다.

이외에 PX, 은행, 병원, 레크리에이션 센터, 주유소 등이 있고, 조금만 나가면 한국식당도 3-4개 있으며 식생활에는 불편이 없다.

맺는 말

국가예산의 20%를 사용하는 미국 국방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금부터

20년전에 국방물자 체계 관리학교(지금은 대학)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4만여명의 뛰어난 지도자들을 배출하였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들의 절대적인 뒷받침으로 성취된 것으로 믿는다.

오늘날 감군이나 군축 등 국제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1991년 10월 1일에 국방체계 획득 종합대학교(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설립에 관한 새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모든 유사 교육기관들을 가일층 확대 증편하여 차세대 군사력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이 분명하다. 이들의 비전있는 長期정책구상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

최근에 발간된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지만원 著, 김영사 발행)라는 단행본이 이 분야에 종사하는 민, 관, 군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우리는 경제력 건설과 군사력 건설을 다 함께 잘해야만 하는 (지정학적인)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이에따라 나라 예산의 30% 이상을 국방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예산관리에 시시비비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으나 효율적인 관리가 아쉬운 입장이다.

미국처럼 전문적인 관리자 양성기관이 없이도 우리는 그동안 용케 잘 해온 것 같다. 그러나 무기체계와 기타 국방물자가 다양화, 복잡화, 첨단화, 고가화 되는 경향이므로 이 막중한 과제 관리를 위해서는 더이상 아마추어의 손에 맡겨서는 안되며, 반드시 전문가의 손에 맡겨져야만 한다. 물론 이들 전문관리자의 경력관리 문제는 훈령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최근에 와서 국방부와 각군 그리고 업체의 주요 보직자들도 이 분야에 대한 연수교육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절감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